

7) 전죽숲[대가실]

등대산 일대에는 전죽(箭竹)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고려조에 왜구 격퇴를 위한 군사용 화살을 만들기 위해 조성한 군사용 대숲이다. 울진군은 이 대숲을 ‘용의 숲’으로 이름 짓고 해맞이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8) 죽변용추

등대 밑의 바다에 용암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용이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수일 내로 비가 내린다고 한다. 지금은 축항공사로 암석이 파손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있다.

9) 죽변항

동해안어업전진기지이자 국가어항이며, 오징어, 대구, 대게, 새우, 방어 등 동해안 어종의 주산지이다.

제5절 화성1리(花城一里)[속명 : 꽃방, 화방(花坊)]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봉평리 박실(朴實)과 이웃하고, 죽변면 소재지가 3km 거리에 있으며, 남쪽은 울진읍 명도리 아산동과 닿아있다. 서쪽으로 울진읍 명도리 시거리(三街里)가 있고, 북쪽은 화성2·4리와 접하고 있다. 솔치봉 지맥(支脈)이 동으로 뻗으면서 생긴 대당산[大唐山 : 163m]이 마을 뒷산이며, 화성2리 동막에서 발원한 내(細川)와 화성3리 동막에서 발원한 내(細川)가 화성4리[성내]에서 합류하여 화성1리[꽃방] 앞으로 흘러 울진 남대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마을회관은 2011년에 새로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515년(중종 10)경에 영양인(英陽人) 남수정(南守貞)이 처음 이 마을을 개척하고 15대(代)로 살아오면서 영양 남씨(英陽南氏)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을 꽃방이라 하게 된 것은 마을 앞 농경지 중앙에 나직한 독산(獨山)이 있는데, 이 산을 중심으로 사방의 산이 높낮음으로 조화를 이루어 마치 꽃잎 같고, 한복판의 독산은 꽃술과 같다 하여 꽃방(花

坊)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3. 가구 분포

총 56세대가 거주하며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집성촌을 이루며 올진 장씨(蔚珍張氏)가 10여 호 분포한다.

4. 마을의 특징

1) 상현사(尙賢祠)

상현사는 남영번(南永蕃), 남계명(南季明), 남사고(南師古) 세 유현을 배향하는 사우(祠宇)이다. 1864년(고종 1)에 창건, 남사고를 봉안하고 화산사(花山祠)로 부르다가, 1867년에 남계명을 함께 봉안하고 양현사(兩賢祠)로 개칭했다. 1959년 중건하면서 남영번을 함께 봉안하고 상현사로 개칭했다. 남영번은 고려조 중랑장으로 영양 남씨 올진 입향조이며, 해운당 남계명은 남영번의 손자로 1483년(성종 14)에 식년시에 등과했다. 행실이 고결해 ‘금시(金矢)’라 불렸으며,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이다. 격암은 조선 중기 올진의 성리학을 정착시킨 유학자이자 천문학자이다. 실천철학을 설파했으며, ‘주역’의 이치에 밝아 ‘해동강절(海東康節)’로 불렸다. 유집(遺集)으로 『격암유록(格菴遺錄)』, 『마상록(馬上錄)』, 『선택기요(選擇紀要)』 등이 있다.

2) 화계팔경(花溪八景)

꽃방 뒷산을 대당산(大唐山)이라 하는데, 이는 영양 남씨(英陽南氏) 시조가 당(唐)나라에서 왔으므로 당경(唐京)을 바라본다는 뜻에서 대당산이라 하고, 이 산을 중심으로 송가문(誦歌門) 등 팔경이 있었다고 전한다.

3) 화성리의 향나무

죽변면 화성리에 있는 수령 500년의 향나무이며,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12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14m, 가슴높이 둘레 4.2m, 뿌리 근처의 둘레 9m, 가지 밑의 높이 2.3m이다. 가지 길이는 동쪽으로 6.3m, 서쪽으로 3.6m, 남쪽으로 6.8m, 북쪽으로 9.2m이다.